

3/22(월) 룯기 묵상 9

룯기 4: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작 마당을 마친 보아스는 성문 어귀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성문 어귀는 당시 성읍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장소였습니다. 성문은 백성들에게 있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이 이곳에 와서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재판을 하기도 하고, 성읍의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모여 율법상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보아스는 룯의 기업을 무를 책임 때문에 이곳에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개여

보아스는 성문 어귀에 앉아 자신보다 룯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한대로 성문 어귀는 마을의 중심지로서 그곳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성읍의 장로 열 명을 청하여 판결을 요구하게 됩니다(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장로들은 사사를 대신하여 각 성읍의 재판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 한 사람이 나라 전체의 모든 일을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성읍마다 연륜과 덕망 있는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이 일에 장로가 열 명이나 참여했던 이유는 당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적 성원 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후일에 유대교에서 독립적 회당을 구성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회원 수를 장로 10인 이상으로 정한 것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나오미가 죽은 남편이 갖고 있던 땅 즉 소유지를 팔려 했기에 그것을 사야 했습니다(3-4절상). 이러한 전통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 무를 자에게 팔아서 그 땅을 계속 가문 중에서 남기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룯이라는 자부가 있고 그녀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룯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을 듣고 그 기업 무를 자는 마음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6절,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만약 자신이 룯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신이 나오미에게 구입한 땅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룯의 자녀에게 돌아갈 것이 머리속으로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룯에 대한 기업 무를 책임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

보아스는 자신보다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태도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룯의 기업을 자신이 물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아무개는 자기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바람대로 결국 보아스는 룯의 기업을 무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와 보아스의 성숙한 믿음을 목상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의 공통점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달리 나오미의 땅을 사고 룯과 혼인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비록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손익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될 때 더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합3장 17-18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아무런 댓가 없이 순종하며 기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테러와 핍박을 위한 기도:** 북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밀포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종국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